

순천시 '한·중·일 미래융합 페스티벌'

'문화의 확장-생태 만물상' 주제 210여 작가 28개 작품 전시
28일까지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코로나 극복 염원 등 담아



순천문화재단(이사장 허석)은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동아시아 문화도시 주간에 '한중일 미래 융합 페스티벌'을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개최한다.

한중일 미래융합 페스티벌은 공동주관한 한국자 위원회를 비롯해 순천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 미술협회 순천시부, 중국 Asia Art Center와의 협업을 통해 순천문화재단이 전체 주관한 국제행사다.

'문화의 확장-생태 만물상(Beyond Culture-Ecology all things)'이란 주제로 열리는 페스티벌에선 자연과 예술의 융합과 코로나19의 극복 염원과 미래상을 담은 한·중·일 210여명 작가들의 문화적 교감을 나눈 28개 전시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시1관 '지역작가 초대전'에선 김만옥, 장안순, 한임수, 위수환 작가들의 멋진 풍광이 담긴 순천만의 초연작들과 함께 순천미협 50년사, 조광훈 아트 스튜디오 기획 영상전을 만날 수 있다.

전시2관 '한중일 메인 작가 초대전'에선 한국 권지규 작가의 대형 설치작품 및 일본 에가미 에츠의

초연작, 중국 차세대 영상 아티스트로 꼽히는 천시 작가와 인사오평 작가의 조형작품 등을 선보인다.

'아트와 테크의 만남'인 전시 3관에선 김동현, 맹옥재, 순천대지의류연구센터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협업 등 젊은 작가들의 다양한 볼거리가 기대된다.

한중일 차 문화 교류전인 전시4관 '동아시아 티카니발'에선 한중일을 관통하는 공통문화 코드인 '차 문화'를 순천만에 풀어낼 예정이다.

전시관람은 코로나19 방역에 대비해 공간대비 인원 제한(시간당 1회 40명)을 두고 진행될 예정으로 네이버 사전예약('한중일 미래융합' 검색해 예약페이지 이동 또는 <https://url.kr/8ykz04>)을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순천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인류가 코로나 치유의 염원을 담은 작품들과 함께 평생 잊지 못할 사진들을 이후 세대들에게 증표로서 남겨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시아문화도시시는 매년 한중일 대표 도시를 선정해 각국 공식행사 및 연중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한중일 공동발표에 따라 한국 순천시, 중국 소흥사·문화시, 일본 기타큐슈시 등 3개 국 4개 도시가 공식적으로 대내외에 선포하고 행사를 진행 중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창작 심청전의 한 장면인 협주곡 연주 모습.

(곡성군 제공)

현대판 심청전으로 '눈 호강'

곡성군, 21일 도드리국악 캠프장·22일 동악아트홀

곡성군에서 21일과 22일 오후 3시 창작국악단 도드리의 창작 심청전 '심청, 세상의 별이되다' 공연이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사)창작국악단 도드리 전남지부가 전남문화재단의 2021년도 공연예술창작 지원 사업에 선정돼 선보이게 됐다. 도드리 측은 이번 공연에서 전통 국악 '심청전'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시도한다.

21일에는 곡성 도드리국악 캠프장에서, 22일에는 곡성레저문화센터 동악아트홀에서 열린다. 코로나19를 감안해 22일 동악아트홀 공연은 온라인 비대면으로도 만날 수 있다.

공연은 총 3막으로 구성된다.

제1막 '생희사비, 곡성에 울리다'에서는 곡성 죽동농악의 길놀이, 국악관현악곡 '섬진강', 창작국악가요 '꽃상여' 등으로 시작된다. 심청이 태어나기까지의 과정과 심봉사 부인이 죽음에 이

르는 과정을 노래한다.

제2막 '출천지효, 하늘도 땅도 울다'에서는 창작 국악가요 '심청별곡', '이별'과 국악 관현악 무용곡 '죽향풍월', 합창-범피조류 중 '벚노래'가 이어진다. 심청이 공양미 삼백석에 팔려가는 가슴 아픈 사연을 위로하는 대목이다.

제3막 '심청지효, 세상의 별이되다'에선 타악 퍼포먼스 '무령지곡의 울림', 창작곡 '세상의 별이되다', 도드리와 죽동농악의 만남 '뒤모리에 놀다', 피날레 창작국악가요 '축제로'가 펼쳐진다. 심청의 왕후됨을 축하하고 행복한 결말을 이룬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지휘자 김재섭 도드리 이사장은 "곡성군 죽동농악과의 협연을 통해 공연의 묘미를 더했다"며 "아심자게 준비하고 쉽없이 연습했으니 많은 분들께서 즐기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구례 수해, 같은 재난 두 번 겪지 않도록...

군, 수해백서 곧 배포...1년간의 극복 과정·수재민 애환 등 담아

구례군이 연초부터 추진해 온 '2020 구례지역 섬진강 수해 백서' 발간 사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구례군은 수해백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취합된 기록물을 구례군 각 부서와 군의회, 수재민 단체와 공유함으로써 최종 검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750페이지 분량으로 편집이 완료된 수해백서는 2020년 8월 8일 섬진강댐 하류 구례지역에서 발생한 홍수피해 상황과 1년 동안의 수해극복 기록을

담고 있다.

백서발간에는 구례군을 비롯해 구례군의회, 13개 유관기관, 수해극복 민간단체 4곳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백서는 크게 도입부, 본문, 부록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도입부에는 1년간의 주요 극복 과정과 피해 내용 등을 요약해 88장의 사진과 함께 수록했다.

본문은 초기상황, 이재민 구호, 공공 및 민간 피해 복구, 8개 읍면·구례군의회·13개 유관기관 및 민

간단체의 수해극복 기록을 담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3일 정부에서 발표한 수해원인 분석결과와 구례군에서 시행할 향후 개선과제도 함께 담았다.

부록에는 자원봉사자 및 수재민연표 기부자 명단, 언론보도 목록을 첨부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백서를 통해 같은 재난을 두 번 다시 겪지 않도록 후대를 위한 교훈으로 남기겠다"며 "수해 극복에 다 함께 노력했던 것처럼 백서 발간도 군민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구례군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기록물을 확정된 후 올해 하반기 중 백서를 책자로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 온라인 공연

오늘부터 매주 금·토 저녁 7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위로와 힐링의 메시지를 전할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이 비대면 온라인 공연으로 찾아온다.

여수시에 따르면 20일부터 가사리 생태공원, 모사금해수욕장, 예술의 섬 장소 등 여수의 아름다운

관광지와 섬을 배경으로 실력 있는 버스커들의 다양한 무대가 어우러진 공연을 비대면 유튜브버스킹으로 감상할 수 있다.

'여수밤바다 낭만유튜브버스킹'은 8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저녁 7시에 유튜브 '여수MBC뮤직플러스'를 통해 공개된다.

매주 공개된 버스킹은 '여수MBC뮤직플러스'에

서 언제든지 즐길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그동안 여수밤바다를 배경으로 낭만과 희망을 노래했던 버스커들이 비대면 온라인 버스킹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음의 위안과 희망을 주고, 침체된 공연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밤바다 낭만버스킹은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해양공원 일대와 낭만포차에서 매년 다양한 장르의 버스커들을 초대해 큰 호응을 얻었으나,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공연으로 진행하고 있다.

/여수=김창희 기자 chkim@

보성군은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제23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를 무관중 경연대회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군중 운집 가능성이 큰 대규모 공연과 체험프로그램 등은 하지 않고 추모공연, 경연대회 등 필수 프로그램만 진행할 예정이다.

경연대회는 실시간 동영상으로 유튜브를 통해 송출되며 판소리 명창부 본선은 공연TV로 내보낸다.

이번 대회부터는 판소리 명창부 참가 자격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대통령상 훈격에 맞는 명창 선정을 위해 보성군은 판소리 다섯바탕 중 한바탕 완창자 또는 2시간 이상 발표회를 가진 자만 참가가 가능하도

록 참가 기준을 변경했다.

판소리 명창부 본선 심사에는 청중평가단 제도를 도입, 20명의 청중평가단의 점수가 심사 총점에 반영될 예정이다.

경연대회는 판소리와 고수분야로 나눠 명창·명고부와 대학 및 일반부, 신인부, 학생부, 학생부종합 등으로 열린다.

참가 희망자는 9월 24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061-850-5892)로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은 서편제의 비조 박유전 선생과 보성소리를 정립한 정응민 선생, 정권진, 성우홍, 조상현, 성장순 등 많은 명창을 배출한 판소리 명창의 산실로 대한민국 국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